

야나기하라 가문 주택

야나기하라 가문 주택은 오모리 지구에 있는 무사 가문 저택 중에서도 가장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단층 구조로 된 이 건물은 이 지역의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되었던 1800년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이 집은 광산의 중심부로 드나드는 사람이나 물자의 흐름을 규제하는 감시소를 감독하기 위해 고용된 하급 관리도신(현재의 경찰 경위에 해당하는 직위)의 거주지였습니다. 이 감시소의 감시인은 은광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세금을 매기거나 막부의 재원인 은이 반출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채굴 지역에서 노동이나 거주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도신은 이와미 은광을 관리하기 위해 막부에서 임명된 오모리 다이칸(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의 관리)이 근무하는 오모리 다이칸쇼(다이칸이 집무하는 관청)와 감시소를 연결하는 연락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도신은 급료가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다이칸쇼를 중심으로 한 이와미 은광에서는 ‘중산계급’으로 여겨졌습니다. 야나기하라 가문 주택에서는 검소하면서도 무사 계급이 중시했던 특유의 다양한 요소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안타깝게도 현재는 사라지고 만 당당한 모습의 문과 담장, 그리고 안채 옆의 내화성을 갖춘 작은 토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겼던 무사 계급에게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현재 안채부터 큰 길을 마주한 산울타리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 정원은 원래 부수입을 얻기 위한 임대용 건물이 지어졌던 곳입니다. 야나기하라 가문 주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